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2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7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목차

포커스: 19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며(7월 13일 최동익 의원실로부터 수신한 글입니다.) / 최동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9대 국회의원)
장애인계 뉴스
1.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기사 읽기 왜 어려운가 했더니…신문사 웹 접근성 조사결과 평균 44.9점밖에
2. 정보취약계층이 뽑은 웹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된다
3. 시각장애인, 메시지·점자·전화로 수도요금 받는다
4.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설계 시민공모 당선작 발표
5. KBC광주방송, 호남지역 최초로 화면해설방송 시작해
6. 금융감독원 공시정보,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돼
7.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위해 각막이식 무료수술 지원한다
사람이야기: 장애인으로는 세계최초로 4대 극한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3대 극지점을 목표로 또다시 발걸음을 내딛은, 송경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독자마당: 모춘삼월(봄이 저물어 가는 음력 삼월-편집자 설명)/ 정철우(대전대학교보건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7월 1일~7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0)

~~~~~~~~~~~~~~~~~~~~~~~~~

포커스

19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며(7월 13일 최동익 의원실로부터 수신한 글입니다.)

최동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19대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최동익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단 지도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실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장애계를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소외되거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 교육, 취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은 물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장애 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실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저의 19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저 자신에게 숙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과 정치적 입장보다 먼저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불합리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정부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각종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직업정책만 하더라도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여러 부처에서 중복 시행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합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 정책 수립이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셋째, 장애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당 내에 장애인조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당내 장애인 조직은 단지 정치적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당 내에 전달하는 소통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300명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원도 비장애인의원과 다름없이 의정활동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다시금 장애인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장애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계 뉴스

1.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기사 읽기 왜 어려운가 했더니…신문사 웹 접근성 조사결과 평균 44.9점밖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국내 대표 신문사 홈페이지 10곳에 대하여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44.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낮은 신문사는 33.3점을 받은 국민일보였고, 다음으로 조선일보(35.2), 세계일보(39.2), 서울신문(40.3) 순이었다.

어느 식당을 가든 메뉴를 봐야 무얼 파는지 알 수 있다. 홈페이지에도 식당의 메뉴판처럼
~~~~~~~~~~~~~~~~~~~~~~~~~

홈피의 콘텐츠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주 메뉴 및 하위메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읽기프로그램으로는 이들 신문사 홈페이지의 메뉴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거나, 상위메뉴와 하위메뉴간의 체계를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기사를 보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키보드를 사용해 인터넷을 탐색하는 장애인들은 기사 본문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아래 방향키를 평균 100번 이상 눌러야 겨우 기사 본문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포커스를 본문까지 곧장 이동시켜 주는 바로가기 링크를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동아일보는 평가대상 중 유일하게 본문바로가기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신문사들이 기사는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도 화면읽기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매일 신문을 본다는 시각장애인 조모 씨(31)는 본문바로가기가 없어 기사 찾는 데 키보드를 여러 번 눌러야 하니 정말 진이 빠진다며 신문읽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키보드를 사용하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에게도 홈페이지 탐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홈페이지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키보드 포커스가 비논리적으로 이동하거나, 포커스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내용을 광고창이 가리고 있었는데 키보드 포커스가 사라지는 바람에 광고창도 닫지 못하고 글도 온전히 읽을 수 없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은 "인터넷 접근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약자가 겪는 손해를 생각한다면 웹 접근성을 안 지켜도 그만인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5월 7일부터 18일, 전맹 시각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 각 1인이 참여하였으며,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2. 정보취약계층이 뽑은 웹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민간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웹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

한시련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선정 사이트 웹 접근성 컨설팅 사업'을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및 공공부문 웹사이트 중 정보소외계층의 이용욕구가 높은 35개 사이트에 대하여 웹 접근성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이트 관리기관과 상의해 추진한다.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앞서, 한시련은 장애인 웹사이트 이용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에서 11개 영역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분야 3가지를 고르도록 했는데, 응답자들은 쇼핑(2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2위는 금융(15.9%), 3위 교통(15.0%), 4위 민원발급 등 대민서비스(11.5%), 5위 교육(10.1) 순이었다.

또, 사용하고 싶으나 장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이트를 모두 적도록 한 질문에서 응답한 사이트를 영역별로 분류했더니, 1위 쇼핑(24.1%), 2위 포털(16.3%), 3위 금융(13.5%), 4위 공공기관(9.9%) 5위 언론(9.2%)으로 드러났다.

한시련에서 이번 사업에 민간영역을 포함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에서 정한 웹 접근성 의무대상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아직 의무가 아닌 민간영역은 장애인들의 사용빈도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비해 접근성 수준이 낮아 웹 접근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선정 사이트를 관리하는 곳의 동의와 협조 하에 진행되므로 웹 접근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한시련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 4월 11일부터 웹 접근성 의무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용절감과 함께 효과적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욕구가 높은 사이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웹 접근성이 월등히 개선됨으로써 정보접근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홈페이지 사이트 담당자들의 협력 없이는 웹 접근성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며 도움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근거로 한 기술성 평가와 장애인 평가단의 사용성 평가가 포함된다.

3. 시각장애인, 메시지·점자·전화로 수도요금 받는다

서울시는 휴대폰에 요금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도요금 안내서비스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수도요금 청구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표기해 왔으나, 7월부터 문자메시지 전송, 점자 안내문 우편 발송, 전화 안내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어주는 음성변환(TTS)기능이 있는 휴대폰에 수도요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작으로, 서울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제작한 수도요금 점자안내문을 시각장애인 가정으로 우편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담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전화로 수도요금 청구내역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시각장애인들의 민원도 함께 수렴한다

서비스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각 수도사업소로 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02-3146-1181)로 문의하면 된다.

4.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설계 시민공모 당선작 발표

서울시가 재건축 예정인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노원복지관) 설계공모 당선작 1점과 우수작 1점을 지난 7월 10일 발표했다.

공모에 참여한 3개 작품에 대해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당선작인 (주)관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 ‘공감’에 대해 노원복지관 신축공사 기본·실시 설계권을 부여했다.

당선작은 짜임새 있는 구조 설계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동선 설계는 물론 보행

및 차량의 동선을 정확히 구분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한 외관 설계로 열효율을 높였으며 건물의 옥상에는 장애인들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허브 정원과 쉼터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근 심사위원장·건국대교수는 “에너지 세이빙(Energy Saving)을 고려한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적 설계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배치, 역동적인 디자인 등이 탁월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노원복지관 재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올해 12월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음악치료실, 기초재활실, 화면해설스튜디오, 녹음부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노원복지관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친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으나 2011년 실시한 두 번의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되어 더 이상의 보강으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재건축을 결정하게 되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배경섭 건축부장은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 제공으로 장애인들이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각장애인의 자활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 KBC광주방송, 호남지역 최초로 화면해설방송 시작해

KBC 광주방송은 시각장애인의 미디어접근권 향상을 위해 호남지역 최초로 화면해설방송을 시작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에 화면해설을 입혀 7월 22일 방송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 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화면해설방송을 의무적으로 10% 이상 편성해야하지만, 호남지역 화면해설방송은 KBC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가 유일하다.

유명희 KBC 광주방송 PD는 “대사 사이사이 비는 시간에 화면 설명을 넣는 등 편집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화면해설방송을 통해 시각 장애인들이 우리 방송을 박진감 있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는 “부산이 KBS, MBC 등 지상파 방송3사와 주1회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호남지역 방송사의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며, “호남지역 화면해설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때”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제작단을 양성·운영하고 있으며, 화면해설영화 및 방송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시청권 보장 및 증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 하반기 대학 내 '화면해설방송작가 양성과정'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6. 금융감독원 공시정보,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 이하 금감원)은 지난 7월 12일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을 7월 16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공시란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전자공시시스템은 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서비스이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공시시스템 개선사항을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낭독 프로그램(스크린리더)을 통해 공시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면의 배색을 조정하여 색약자도 공시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지체 장애인도 키보드만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고령자는 화면이나 글자의 크기를 확대하여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전자공시 이용자의 PC환경이나 웹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표준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였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모바일기기를 포함하여 어떤 PC나 어떤 웹브라우저에서도 자유롭게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이 공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위해 각막이식 무료수술 지원한다

충청남도(도시자 안희정)는 도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각막이식 무료시술을 지원한다고 지난 7월 17일 밝혔다.

대상은 충청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각막손상으로 인해 시력 손상을 입은 65세 이하 시각장애인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시·군 장애인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각막이식 무료시술 지원은 도가 지난 2009년 미국 LA올림픽라이온스클럽과 체결한 ‘시각장애인 각막 이식수술 지원협약’에 따라 추진해 온 민·관 협력 복지사업이다. LA올림픽라이온스클럽이 미국 안구은행을 통해 각막을 지원하면 도는 안구 운송비와 통관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협력병원인 대전성모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09년 첫 해부터 현재까지 18명의 시각장애인이 성공적인 시술을 받고 생활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각막이식 무료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각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람이야기

장애인으로는 세계최초로 4대 극한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

3대 극지점을 목표로 또다시 발걸음을 내딛은, 송경태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이번 호 사람이야기의 주인공인 송경태 관장에게는 수식어가 참 많다. 세계 최초로 4대 극한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장애인,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전 시의원, 대한민국 신지식인, 헬렌켈러복지회 이사장 등 나열하자면 지면 하나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온 그의 삶 자체일지 모른다.

송 관장은 한창 때인 스물한 살 나이에, 군에 입대한지 40일 만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었다. 한때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사고와 강한 의지로 이겨내고 장애인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다.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도전은 곧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안나푸르나 등정에 성공하기도 했다. '결혼하는 것'과 '컴퓨터 잘 다루는 것', '대학 가는 것'이라는 세 가지 소원을 28년 만에 모두 이루고 새롭게 정한 세 가지 소원을 이뤄내기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 그를 브레일 타임즈에서 만나보자.

-올해 2월에 안나푸르나 등정을 다녀오셨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괜찮다. 워낙 산행을 많이 하다 보니 금방 몸이 풀린다. 한국산악회 회원인데 매월 1천 미터이상 고지들을 산행한다.”

-극한마라톤과 산행을 하시는 분 같지 않게 손이 참 고우시다.

“그 얘기를 많이 듣는다. 사람들이 손도 몸도 우락부락할거라 생각하는데 만나보니 아니라며 놀라곤 한다. 고지대 산행은 동상이 잘 걸리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간다.”

-강의, 마라톤, 도서관운영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신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궁금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우선 이메일과 페이스북 등 SNS를 확인한다. 그리고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 수필, 시, 소설, 일기 등을 쓰는데 글감이 항상 떠올라서 메모를 해놓곤 한다. 책은 1년에 100권 정도를 읽는다. 그러고 나서 1시간정도 운동을 한다. 도서관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나온다. 모임, 회의, 강의 등 외부 일정이 많아서 도서관에 자주 오지 못하고 스케줄도 늘 유동적이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두 번은 산에 간다. 마음도 건강 생각도 건강 정신도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장애인 세계최초로 4대 극한마라톤(사하라, 고비, 아타카마, 남극)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그런 커다란 기록을 세우게 만든 첫 발걸음이 궁금하다.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97,8년도 당시 우리나라에 마라톤 붐이 일었다. 라디오를 듣는데 도로를 막고 마라토너들이 뻥뚫린 길을 신나게 달린다는 멘트를 들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운동할 곳이 많이 없었는데 마라톤이라면 안내견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6개월 정도를 안내견과 같이 연습을 했다. 매년 10월 열리는 춘천국제마라톤대회가 첫 마라톤대회였다. 5km 코스였는데 43분이 걸렸다. 완주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고 매주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5km 코스가 10km가 되고 10km가 하프가 되고 하프가 풀코스가 됐다.”

-그렇다면 일반 마라톤이 아닌 극한 마라톤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2002년 한일월드컵 홍보를 위해 안내견과 미국대륙을 횡단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싶었다. 월드컵을 홍보하는 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했다. 4천km를 3개월에 걸쳐 횡단했다. 그때 사하라사막 마라톤대회를 알게 됐다. 중학교 지리시간에 사하라사막을 배울 때부터 사하라사막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다.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꿈을 접었는데, 마라톤대회라면 갈수 있을 것 같았다. 8년을 준비했다. 한창 더운 시간에 전주 시내를 뛰며 운동을 하고 찜질방 불가마에서 벽돌을 달고 뛰었다. 사막의 백사장을 대신해서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서 연습했다. 백사장에서 등산화 신고 모래주머니 차고 달렸다. 다들 나에게 미쳤다고 했다. '불광불득'이란 말이 있는데, 미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때 그 말을 실감했고 '불광불득'은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사막, 남극에서 마라톤도 하시고 히말라야 등정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

"사하라사막이다. 아들과 함께 간 아타카마도 기억에 남고 어느 곳 하나 기억에 남지 않는 곳이 없지만 사하라가 처음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처음에는 별 생각이 다 든다. 그러다 사념마저 말라버리는 순간이 오고 내가 왜 이곳을 가고 있는가하는 성찰의 시간이 온다. 성인이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 순간이다. 마라톤도 죽을 것 같은 어느 순간을 지나면 쾌감이 있듯 지금을 견뎌내면 모래도 다르고 바람도 다른 새로운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또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생각도 든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그것을 깨닫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해내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허허'웃으며 넘기게 된다. 아내는 내가 사막마라톤이란 목표가 생겨야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한다. 늘어질 때마다 일종의 채찍질이 된다."

-쉰을 넘기신 나이에도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하다

"끊임없이 걷고 수시로 운동한다. 계단도 오르고 러닝머신, 맨손체조, 산행을 한다. 한 달에 한번 지리산, 한라산 같은 산에 가곤 하는데, 거기서도 시각장애인은 나 혼자다. 산악인들도 아래에서 산을 보면 '저기까지 어떻게 가나' 한다고 하더라. 근데 옆에 나를 보면 '저런 사람도 하는데…'라며 위안이 된다더라. 그래서 서로들 나와 함께 가려고 한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사고로 실명을 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워낙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다 보니 부대에서 수류탄에 사고를 당했을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치료받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안과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재활상담을 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게 없었다. 6개월 투병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어려워지면서 외톨이가 됐다. 어머니는 숨어서 우시고 아버지는 본인의 눈을 주셔서라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셨다. 희망의 끈을 잡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그저 절망만 하고 있을 때 라디오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시각장애학생의 사연이 들려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라디오프로그램에 전화를 했다. 그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바로 라파엘의 집 정지훈 원장이었다. 그분이 점자책과 흰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개인적으로 재활훈련을 해주신 거다. 정지훈 원장은 나에게 은인이다. 그 후 안마수련원에서 안마를 배우면서 대학에 다녔다."

-세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모두 이루었다고 들었다

"'결혼하는 것'과 '컴퓨터 잘 다루는 것', '대학 가는 것'이 목표였다. 작년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28년 만에 소원을 모두 이루었다."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점이 재미있다. 부인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과연 내가 결혼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나는 행운아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다. 당시 아내와 나는 22살 동갑내기였다. 아내 고향이 대전이었는데 오빠가 전주에 있는 백화점에서 화장품 코너를 했다. 그 맞은편에서 이모가 옷가게를 했다. 아내가 대학교 2학년 방학 때 잠깐 도와주러 오빠 가게에 왔었는데, 이모가게에 놀러갔다가 첫눈에 반했다. 용기를 내서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다. 나를 순수하게 봤던 것 같다."

-세 가지 소원을 모두 이루셨는데, 또 다른 소원이 생기셨는지.

"그렇다. 새로운 소원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째는 지구상의 세극지점인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를 밟아보는 것이다. 남극은 이미 가봤으니 33.3%를 이룬 셈이다.

두 번째 소원은 희망모울을 만드는 것이다. 희망모울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곳으로 희망을 모은다는 뜻이다. 전주에 땅도 사놨다. 몇 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

세 번째는 평평운동이다. UN의 미래포럼위원회가 주창하는 내용인데, 휠체어·유모차가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휠체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후에 엄청 힘들 것이다.

-세 가지 소원 외에 또 다른 목표가 있는지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에베레스트가 마지막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를 시작으로 내년 안에 유럽의 몽블랑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오세아니아 최고봉 칼츠텐츠를 갈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바빠 가지 못 했다. 남극 최고봉, 아메리카 최고봉 등 7대륙 최고봉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브레일 타임즈 독자들에게 한마디

“조물주는 우리 같은 장애인도 쓸모가 있기에 만든 것이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세타령, 자포자기 하기보다 그 역할을 찾아서 해내야 한다.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면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찍는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필요한 존재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낸다면 본인들도 보람을 느끼고 장애인 세계에도 희망이 지속될 것이다.”

~~~~~~~~~~

독자마당

모춘삼월(봄이 저물어 가는 음력 삼월-편집자 설명)

정철우(대전대학교보건대학원 객원교수)

모춘삼월, 서산낙조, 일엽편주, 초로인생. 그런 말들을 가슴 속에 담고 산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도 그런 말들을 즐겨 썼다. 그래서 고향의 어른들은 나를 보고 ‘애늙은이’라고 불렀다.

저무는 봄이 아쉬워서 윤삼월 삼일, 모춘삼월 오후에 송광사를 다녀왔다. 송광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천년고찰이다. 송광사가 옛날에는 승주군 조계산에 있었는데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이제는 순천시 조계산에 소재하게 된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빨치산 염상진의 무덤도 승주군 조계산이 아니라 순천시 조계산에 있는 것이다.

송광사 주차장에서 송광사 일주문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800미터이다. 송광사로 오르다보면 굽이굽이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 계곡 바닥에 있는 돌의 모양과 색깔이 드러날 만큼 그 물이 맑았다. 송광사 계곡에는 산버들이 제법 있었다. 버들가지를 꺾어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고 싶었지만, 칼이 없어 그러지 못함이 못내 아쉬웠다. 어린 시절 내 고향 산천에 봄이 오고 또래 아이들이 학교로 가면 홀로 남은 나는 냇가에 나가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며 배고프고 눈 안 보이는 서러움을 달래곤 했다. 정선아리랑, 한 오백년, 궁초댕기, 어랑 타령을 불렀다. 삶이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불렀다.

송광사로 오르다가 좌측으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조그마한 암자가 나오는데 고 법정스님이 거하시던 불일암이다. 법정스님의 글을 읽다보면 불일암에 봄이 오면 뻐꾸기, 꾀꼬리, 두견이, 찌르러기, 산제비들이 어김없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스님이 떠나신 산사에는 산새들도 저마다 인연을 따라 떠나갔음일까 새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간간이 부는 봄바람에 땡그랑 땡그랑 풍경만 저 혼자 홀로이 울고 있었다.

일주일 전, 지리산 동편에 있는 쌍계사를 찾았을 때는 동백꽃, 벚꽃은 낙화가 되고 철쭉
~~~~~~~~~~

만 피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 지리산 서편에 있는 조계산 송광사에는 산철쭉, 영산홍, 라일락이 피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라일락 향기가 그윽했다. 대웅전 뒤편 풀밭에는 붉은색 자운영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자운영을 만져보니 어린 시절 고향사천의 풀꽃세상이 그리워서 목이 메었다. 나는 운명 따라 흘러흘러 예까지 왔다마는 자운영 너는 어이하여 이곳에 피었느냐 물어보았지만, 그가 대답할리 없었다.

송광사를 돌아보고 걸어서 하산하는데 조계산 저녁바람과 계곡을 흐르는 청아한 물소리가 60년 내 인생의 일만 시름을 덜어주었다. 송광사 주차장에서 1킬로미터쯤 하산하다 보니 우측에 보리밭이 있었다. 차를 세워놓고 보리를 만져보니, 보리 이삭이 패고 있었다.

나는 보리에 대한 남다른 향수를 가지고 있다. 어릴 때 내 고향 안성에서는 보리이삭이 5월 중하순에 패고 있었는데 송광사 보리밭에서는 4월 하순에 패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일까 아니면 송광사가 내 고향 안성시 일죽면에서 293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까. 내 고향 안성시 일죽면에서 순천시 송광면까지는 293km, 730여리이고 승용차편으로 4시간 2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보리 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 - 르닐니리

보리 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 - 르닐니리

보리 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 - 르닐니리

보리 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幾山河)
눈물의 언덕을 지나

피 - ㄹ닐니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7월 1일~7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7월 1일(일요일) 경상북도 정무부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대구지역 시각장애인 지도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2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단장과의 오찬에 이어 제19대 국회 개원식 참석과 국악방송과의 인터뷰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3일(화요일)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성년후견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4일(수요일)에는 UN ESCAP 국장과 만나 면담을 나누었다.

9일(월요일)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와 민주통합당 기독신우회 창립준비모임에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10일(화요일)에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과 면담을 가진 후,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네트워크 주최 한홍구 교수 초청강연과 민주통합당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11일(수요일)에는 종로장애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회 본회의 참석에 이어 한시련 울산지부장과 만나 면담을 나누었다.

12일(목요일)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의 조찬을 함께 하는 것을 시작으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을 가졌으며, 같은 날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 후 국회방송 '희망인터뷰 300인과의 만남'과 인터뷰를 가진 데 이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와 면담을 나누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13일(금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면담을 나누었으며, 임해규 전 새누리당 의원과 만찬을 함께 했다.

14일(토요일)에는 울산지역 시각장애인지도자들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0)

1) "그 남자 숨겨둔 재산이 많대/많데" 중 어느 것이 맞을까?

-답: 의미에 따라 구분

-해설: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예를 들면, "(영희가 그러는데) 철수가 결혼한대"의 경우 '결혼한데'가 아니라 '결혼한대'로 써야 한다.

반면에 ‘~데’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회상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쓰인다.(예시: ‘그 친구가 말을 아주 잘하데’, ‘철수는 아들만 둘이데’ 등)

또한 ‘~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쓰이는데 이때에는 놀라거나 못마땅하다는 뜻이 들어 있다.(예시: ‘왜 이렇게 일이 많대?’, ‘신랑이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 등)

2) “신랑감이 키가 ‘작데/작디’?” 중 맞는 말은?

-답: 신랑감이 키가 작디?

-해설: ‘~디’는 과거에 경험한 일에 대해 물을 때 쓰인다. 이에 비해 ‘~데’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회상하듯이 말할 때 쓰인다. 그러므로 물어보는 말에는 ‘~디’를 써야한다.

-예시

ㄱ. 동네 어른들도 오셨디?

ㄴ. 김 과장이 그 일을 해내겠디?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